

선행학습·입시정책 변경…10년새 사교육비 60% 늘었다

2014년 18조→2024년 29조 '쑥'
학령인구 감소 불구 4년 연속 상승
초등만 13조…88%는 사교육 받아

학령인구 감소에도 최근 10년간 사교육비 총액은 6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사교육 저연령화가 심해지면서 전체 초등학생 사교육비 증가율이 중·고등학생을 크게 웃돌았다.

4일 국가데이터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사교육비 총액은 29조1천919억원으로, 2014년(18조2천297억원)과 비교해 60.1% 증가했다.

사교육비 총액은 2015년(17조8천346억원)까지 감소하다가 2016년 18조608억원부터 도로 증가해 2019년(20조9천970억원)에는 20조원을 다시 넘었다.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에는 19조3천532억원으로 일시 감소했으나 2021년부터 4년 연속 증가세다.

저출생으로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여전 사회·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교육비 총액은 늘어났다.

교육 서비스 물가가 상승하고, 소득 증가로 교육 지출 여력이 확대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데 이터처 관계자는 설명했다.

맞벌이 가구 증가로 학원이 돌봄 기능을 일부 대체하고 있는 데다 한자녀 가구가 늘면서 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점도 맞물렸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잦은 입시 정책 변화와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는 구조도 생겨났다"고 말했다.

특히 초등학교 사교육비가 전체 증가세를 주도했다.

2024년 초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13조2천256억원으로, 2014년(7조5천949억원) 대비 74.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학교는 40.7% 늘어 증가율이 가장 낮았고, 고등학교는 65.5% 증가했다.

종액 규모에서도 초등학교 사교육비는 중학교(7조8천338억원)와 고등학교(8조1천324억원)의 각각 1.7배, 1.6배에 달했다.

과목별로 보면 초등학교 사교육비 가운데 일반교과가 8조3천274억원으로 전체의 63.0%를 차지했고, 예체능·취미·교양은 4조8천737억원으로 37.0% 수준이었다.

한 사람당 지출하는 사교육비도 많아졌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최근 10년간 사교육비 총액은 6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사교육 저연령화가 심해지면서 전체 초등생 사교육비 증가율이 중·고등학생을 크게 웃돌았다. 사진은 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모습. /연합뉴스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4년 44만2천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으며, 10년 전보다 21만원(90.5%) 증가했다.

일반교과는 27만8천원, 예체능·취미·교양은 1만3천원꼴이었다.

같은 기간 중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27만원에

서 49만원으로 22만원(81.5%) 증가했다.

고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23만원에서 52만원으로 20만원(126.1%) 늘어 증가세가 가팔랐다.

10년 전에는 중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더 많았는데 이제는 사정이 바뀌었다.

고등학생 인구가 크게 준 영향에 총액은 많이

늘지 않았지만, 개별적인 부담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교 단계에서 더 높았다.

2024년 초등학교 사교육 참여율은 87.7%로, 10년 전보다 6.6%포인트(p) 상승했다.

중학교(78.0%)나 고등학교(67.3%)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초등학교의 일반 교과 사교육 참여율은 67.1%, 예체능·취미·교양은 이보다 높은 71.2%로 집계됐다.

이는 맞벌이 가구 증가 속에 예체능 학원이 아이의 방과 후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으로 분석된다.

남궁지영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은 2025년 사회동향에서 "학년이 올라가면서 일반교과의 사교육 참여율 및 사교육비는 증가하는 반면 예체능·취미·교양 과목의 사교육 참여율 및 사교육비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초등 사교육 급증의 배경으로 선행학습도 지목한다.

양 교수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고등학교에 가서 준비하면 이미 늦고 영어, 코딩 교육은 초등학교 때 미리 준비를 마쳐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ES 2026 삼성전자 옥외광고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 개막을 앞둔 3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월드 호텔에 삼성전자 홍보 영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슈퍼리치들이 뽑은 올해 키워드는 'K.O.R.E.A'

삼성證, 30억원 이상 예탁고객 설문조사

국장·성과상회·리밸런싱·ETF·AI 주도

2026년 병오년(丙午年)을 맞아 대한민국 '슈퍼리치'들이 뽑은 키워드는 'K.O.R.E.A'였다.

작년 코스피 불장을 이끌었던 인공지능(AI) 위주의 주식시장 자금 유입과 한국시장의 상대적 강세가 올해도 이어질 것이라 의미라고 한다.

삼성증권은 자산 30억원 이상 'SNI' 고객 401명을 대상으로 최근 '2026년 주식 시황 전망 및 투자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SNI는 예탁 금융자산 30억원 이상인 초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삼성증권 자산서비스 브랜드다.

이번 설문에서 국내 초고액 자산가들은 "2026년 금융시장을 바라보며 국내 주식시장의 강력한 부활과 함께 공격적인 자산 증식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고 삼성증권은 분석했다.

특히 2026년 투자의 핵심 키워드로 'K.O.R.E.A.'를 제시했다고 짚었다.

이는 ▲한국 주식(K-stock) 선호 ▲한국 및 코스닥 시장의 성과 상회(Outperform) ▲주식 자산으로의 리밸런싱(Rebalancing) ▲상장지수펀드(ETF) 활용 ▲AI 주도 시장의 앞 글자를 뜻 것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여기에는 국내 증시의

재평가와 성장에 베팅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석했다.

또 새해 금융시장을 가장 잘 표현하는 사자성어로는 '전도유망(앞날이 희망하고 장래가 밝음)'을 고른 응답자가 25.2%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는 '오리무중(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 갈팡질팡)'이 23.2%를 기록했다.

전반적으로는 올해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을 경계하는 시선도 여전히 존재하기에 나온 결과로 보인다.

설문조사에 응한 초고액 자산가들의 절반 가까이(45.9%)는 2026년 말 기준으로 코스피가 "4,500포인트를 돌파할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이들 중 32.1%는 '오전파'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1월 역대 코스닥 수익률 가장 높다

평균 2.69%…올해도 상승 전망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은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연초 증시가 상승하는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가 번지는 분위기다.

연대 수익률을 보면 코스닥 수익률이 가장 높은 달은 1월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역대 코스닥 1월의 평균 수익률은 2.69%로 연도별 달 중 가장 높았다.

4월이 2.33%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11월(2.28%), 2월(1.93%), 3월(1.11%), 12월(0.66%) 등 순이었다.

연도별 1월 수익률은 29회 중 17회 플러스(+)를 기록했다. 양의 수익률을 기록한 비중이 전

체의 60%에 달한 것이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경우는 12회에 그쳤다.

코스피 역시 1월 수익률이 열두 달 중 상위권을 기록했다. 다만 플러스(+) 수익률 비중은 코스닥 대비 적었다.

코스피 지수 산출 기준시점인 1980년부터 지난 해까지 1월의 평균 수익률은 21.2%로 11월(2.48%), 7월(2.18%)에 이어 세 번째로 수익률이 높았다.

1월에 증시가 대체로 강세를 보인 것은 투자자들이 연말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종목을 매도한 뒤, 새해 들어 다시 사들인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1월에도 주요 기업의 호실적에 힘입어 국내 증시가 상승 흐름을 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선 광주국세청장은 지난 2일 오전 병오년 새해를 맞아 광주청 간부들과 함께 광주 공원 현충탑, 4·19혁명 기념탑 및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사진>

김 청장은 이날 광주공원 현충탑과 4·19혁명 기념탑에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또 국립5·18민주묘지로 이동해 방명록에 '2026년 병오년에도 5·18영령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광주지방 국세청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으며 새해 각오를 다지고, 현화와 분향을 마쳤다.

이어 김 청장은 이날 오후 시무식에서는 "지

자"고 강조했다. /박은성 기자

속적인 국세행정 혁신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광주지방 국세청을 만들어가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자"고 언급한 후 "올해도 납세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세정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한 국세행정을 펼쳐나가

자"고 강조했다. /박은성 기자

로또복권

제1205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당첨번호 14 16 23 31 41 /보너스 2		
1등	3,226,386,263	6개 숫자일치
2등	55,436,191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3등	1,542,545	5개 숫자일치
4등	50,000	4개 숫자일치
5등	5,000	3개 숫자일치

특별경기장의 내용은 매일경매사이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부 및 입찰본증금을 반환하고 신청 가입금을 차감합니다. 다만, 제작국가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① 매각된 주제 및 인도: 소유권이전 다행으로 예상되며, 각종 저당권, 기부금 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다만, 대금과 대금과 함께 예상되는 저당권이나 기부금의 말소권도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로 저당권을 남겨두는 후 등록세와 수입세 및 등록세와 수입세를 청구하고, 국인 우편권자로 예상되는 저당권은 예상되는 저당권을 남겨두는 후 등록세와 수입세를 청구하고, 국인 우편권자로 예상되는 저당권은 예상되는 저당권을 남겨두는 후 등록세와 수입세를 청구합니다.

② 예상대금과 실제 우편권자로 예상되는 저당권을 남겨두는 후 등록세와 수입세를 청구합니다. 다만, 예상대금과 실제 우편권자로 예상되는 저당권을 남겨두는 후 등록세와 수입세를 청구합니다.

③ 예상대금과 실제 우편권자로 예상되는 저당권을 남겨두는 후 등록세와 수입세를 청구합니다. 다만, 예상대금과 실제 우편권자로 예상되는 저당권을 남겨두는 후 등록세와 수입세를 청구합니다.

④ 예상대금과 실제 우편권자로 예상되는 저당권을 남겨두는 후 등록세와 수입세를 청구합니다. 다만, 예상대금과 실제 우편권자로 예상되는 저당권을 남겨두는 후 등록세와 수입세를 청구합니다.

⑤ 예상대금과 실제 우편권자로 예상되는 저당권을 남겨두는 후 등록세와 수입세를 청구합니다. 다만, 예상대금과 실제 우편권자로 예상되는 저당권을 남겨두는 후 등록세와 수입세를 청구합니다.

⑥ 예상대금과 실제 우편권자로 예상되는 저당권을 남겨두는 후 등록세와 수입세를 청구합니다. 다만, 예상대금과 실제 우편권자로 예상되는 저당권을 남겨두는 후 등록세와 수입세를 청구합니다.

⑦ 예상대금과 실제 우편권자로 예상되는 저당권을 남겨두는 후 등록세와 수입세를 청구합니다. 다만, 예상대금과 실제 우편권자로 예상되는 저당권을 남겨두는 후 등록세와 수입세를 청구합니다.

⑧ 예상대금과 실제 우편권자로 예상되는 저당권을 남겨두는 후 등록세와 수입세를 청구합니다. 다만, 예상대금과 실제 우편권자로 예상되는 저당권을 남겨두는 후 등록세와 수입세를 청구합니다.

⑨ 예상대금과 실제 우편권자로 예상되는 저당권을 남겨두는 후 등록세와 수입세를 청구합니다. 다만, 예상대금과 실제 우편권자로 예상되는 저당권을 남겨두는 후 등록세와 수입세를 청구합니다.

⑩ 예상대금과 실제 우편권자로 예상되는 저당권을 남겨두는 후 등록세와 수입세를